

『東醫寶鑑』處方 中 薑三棗二에 관한 考察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¹ ·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² · 한국전통의학연구소³
금경수^{1, 2, 3} · 송지청^{1, 2} · 엄동명^{1, 3}*

A Review on Two *Fructus Jujubae* & Three *Rhizoma Zingiberis Rencns* in Prescription of 『Dongeuibogam』

Keum Kyung-soo^{1, 2, 3} · Song Ji-chung^{1, 2} · Eom Dong-myung^{1, 3}*

¹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²Prof. Graduate School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³Research Center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wo *Fructus Jujubae* & three *Rhizoma Zingiberis Rencns* are usually used in parts of prescriptions in oriental medicine. In 『Dongeuibogam』, those are prescribed as drugs. However, those are not exactly same with original books, which 『Dongeuibogam』 had quoted.

In original books, those are sometimes mentioned just as '*Fructus Jujubae* & *Rhizoma Zingiberis*' or different amount of them. Therefore, authors try to compare with 『Dongeuibogam』 and its original books to find out the reason of discordance.

As a result, we could conclude that Two jujubes & three pieces of ginger are more commonly prescribed than original books and are fixed to use more conveniently and to give standard for doctor.

Key Words : *Fructus Jujubae*, *Rhizoma Zingiberis Rencns*, Dongeuibogam, prescription,

I. 序論

『東醫寶鑑』(이하『寶鑑』)은 1613년에 刊行된 書籍으로, 당시에 出刊된 韓國醫書와 中國醫書 등을 網羅하여 內容에 따라 分類하고 整理하여 集大成한 綜合醫書이다. 『寶鑑』은 內景, 外形, 雜病, 湯液, 鍼灸 등

다섯 개 篇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그 안에는 醫論, 處方, 本草, 鍼灸 등 의학전반에 대한 內容이 收錄되어 있다.

一般的으로 處方の 服用法에 生薑과 大棗가 加해 지는데, 生薑과 大棗는 藥效를 증대시키고 服藥의 容易性을 돕기 위한 것으로, 煎湯時 處方の 構成藥物과 함께 使用된다. 그러나 生薑과 大棗의 使用量에 대하여는 處方마다 차이가 있고, 어떤 경우는 用量을 정해놓지 않아서 精確하게 얼마나 使用해야 하는지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寶鑑』에서는 처방에 사용되는 生薑과 大棗에 대하여 대체로 薑三片 棗二枚라 하여 그 用量을 定하여 處方을 記述하였는데, 이에 관하여『寶鑑』에서 引用한 原書와 『寶鑑』의 내

* 교신저자 : 엄동명.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한의학과 원전학교실.
E-mail: kskeum@wku.ac.kr Tel : 063-850-6941
Fax : 063-851-6941
접수일(2010년 7월 2일), 수정일(2010년 7월 21일),
게재확정일(2010년 7월 22일)

용을 비교고찰한 선행연구가 없어 이를 연구하게 되었다.

II. 本論

1. 『醫學入門』을 出典으로 하는 處方

薑三片棗二枚가 포함된 『寶鑑』 處方 中 『醫學入門』(이하 『入門』)에서 인용한 경우는 총 59회이며 이를 分類하면 다음과 같다.

1) 生薑과 大棗가 없는 것을 薑三片棗二枚로 바꾼 경우

『寶鑑』의 華蓋散은

麻黃二錢 赤茯苓 蘇子 陳皮 桑白皮 杏仁 各一錢 甘草灸五分 右剉作一貼 入薑三片棗二枚 水煎服¹⁾

이지만 原書인 『入門』의 華蓋散은

蘇子 赤茯苓 陳皮 桑白皮 麻黃 杏仁 各一錢 甘草五分 水煎溫服²⁾

으로 되어 있다. 『寶鑑』에서 薑三片棗二枚로 추가하였다. 黃芪鱉甲散³⁾도 같은 경우이다.

2) 生薑과 大棗의 分量이 定해지지 않은 것을 薑三片棗二枚로 바꾼 경우

『寶鑑』의 加味朮附湯은

附子炮 白朮 各一兩 肉豆蔻煨二箇 木香 甘草灸 各五錢 右末每二錢 薑三棗二 水煎服⁴⁾

이지만 原書인 『入門』의 加味朮附湯은

附子 白朮各一兩 肉豆蔻一箇 木香 甘草各五錢 每二錢 姜棗 煎服⁵⁾

으로 되어 있다. 原書에 生薑과 大棗의 分量이 定해지지 않은 것을 『寶鑑』이 薑三片棗二枚로 바꾸었다. 이 외에도 26개 處方이 그러하다.

3) 生薑만 있는 것을 薑三片棗二枚로 바꾼 경우

『寶鑑』의 奔豚湯은

半夏二錢 川芎 當歸 各一錢半 甘李根皮 乾葛 各一錢 黃芩 芍藥 甘草 各七分 右剉作一貼 入薑三棗二 水煎 空心服⁶⁾

이지만 原書인 『入門』의 奔豚湯은

李根皮 乾葛 各六分 川芎 當歸 半夏 各一錢 黃芩 芍藥 甘草各五分 姜煎 溫服⁷⁾

으로 되어 있다. 原書에 生薑만 있는 것을 『寶鑑』에서 薑三片棗二枚로 바꾸었다.

4) 大棗만 있는 것을 薑三片棗二枚로 바꾼 경우

『寶鑑』의 參苓白朮散은

人參 白朮 白茯苓 山藥 甘草灸 各三錢 薏苡仁 蓮肉 桔梗 白扁豆 縮砂 各一錢半 右爲末 每二錢 棗湯點服 ○剉取一兩 入薑三棗二 水煎服 亦可⁸⁾

이지만 原書인 『入門』의 參苓白朮散은

人參 茯苓 白朮 甘草 山藥 各三錢 薏苡仁 蓮肉 桔梗 白扁豆 使人 各一錢半 爲末 每二錢 棗子煎湯 調服⁹⁾

으로 되어 있다. 原書에 大棗만 있는 것을 『寶鑑』에서 薑三片棗二枚로 바꾸었다.

5) 生薑의 分量은 定하지 않고 棗二枚만 있는 것을 薑三片棗二枚로 바꾼 경우

『寶鑑』의 陶氏再造散은

1) 許浚. 東醫寶鑑. 서울. 한미의학. 2001. p.747.
2) 李樾. 醫學入門. 서울. 高麗醫學. 1989. p.491.
3) 『入門』에는 黃芪鱉甲湯으로 되어 있다. 李樾. 醫學入門. 서울. 高麗醫學. 1989. p.583.
4) 許浚. 東醫寶鑑. 서울. 한미의학. 2001. p.1036.
5) 李樾. 醫學入門. 서울. 高麗醫學. 1989. p.428.

6) 許浚. 東醫寶鑑. 서울. 한미의학. 2001. p.782.
7) 李樾. 醫學入門. 서울. 高麗醫學. 1989. p.508.
8) 許浚. 東醫寶鑑. 서울. 한미의학. 2001. p.697.
9) 李樾. 醫學入門. 서울. 高麗醫學. 1989. p.578.

人參 黃芪 桂枝 附子炮 細辛 羌活 防風 川芎 甘草灸
各一錢 右剉作一貼 入薑三片棗二枚 煎至半 入炒
芍藥一錢 再煎二三沸 溫服¹⁰⁾

이지만 原書인 『入門』의 陶氏再造散은

人參 黃芪 桂枝 甘草 附子 細辛 羌活 防風
川芎 煨生姜 夏月 加黃芩 石膏 棗二枚煎 再加炒芍
藥一撮 煎三沸 溫服¹¹⁾

으로 되어 있다. 原書에 分量이 定해지지 않은 生
薑을 『寶鑑』에서 薑三片으로 바꾸었다.

6) 薑三片棗一枚를 薑三片棗二枚로 바꾼 경우

『寶鑑』의 陶氏升陽散火湯은

人參 當歸 芍藥 柴胡 黃芩 白朮 麥門冬 陳皮 茯苓 甘草
各一錢 右剉作一貼 入薑三片棗二枚 入熟金同煎服¹²⁾

이지만 原書인 『入門』의 陶氏升陽散火湯은

人參 當歸 柴胡 芍藥 黃芩 甘草 白朮 麥門冬
陳皮 茯苓 各等分 姜三片棗一枚 入熟金同煎服¹³⁾

으로 되어 있다. 原書에 薑三片棗一枚로 되어 있는
것을 『寶鑑』에서 薑三片棗二枚로 바꾸었다. 이 외에
도 3개의 處方이 그러하다.

7) 薑三片棗二枚로 동일한 경우

『寶鑑』의 加味溫膽湯은

香附子二錢四分 橘紅一錢二分 半夏 枳實 竹茹 各八
分 人參 白茯苓 柴胡 麥門冬 桔梗 各六分 甘草四分
右剉作一貼 薑三片棗二枚 水煎服¹⁴⁾

이지만 原書인 『入門』의 加味溫膽湯은

陳皮 半夏 茯苓 枳實 人參各一錢 竹茹 香附 麥
門冬 柴胡 桔梗各八分 甘草三分 姜三片棗二枚 水
煎溫服¹⁵⁾

으로 되어 있다. 原書의 薑三片棗二枚를 그대로 引
用하였다. 이 외에도 21개 處方이 그러하다.

표.1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入門』을 出典으로 하는 處方

處方	『入門』	『寶鑑』	비고
華蓋散	없음	薑三棗二	
黃芪鱉甲散	없음	薑三棗二	
加味赤附湯	姜棗	薑三棗二	
加味香蘇散	姜棗	薑三片棗二枚	
葛根竹茹湯	姜棗	薑三片棗二枚	
桂附湯	姜棗	薑三棗二	
鹿茸大補湯	姜棗	薑三棗二	
瀉白湯	姜棗	薑三片棗二枚	
蟬蝎散	姜棗	薑三片棗二枚	
小續命湯	姜棗	薑三片棗二枚	
柴胡防歸湯	姜棗	薑三片棗二枚	
連附六一湯	姜棗	薑三棗二	
烏蝎散	姜棗	薑三棗二	
烏頭桂枝湯	姜棗	薑三棗二	
流氣飲子	姜棗	薑三片棗二枚	
凝神散	姜棗	薑三棗二	
人參當歸散	姜棗	薑三棗二	
一清飲子	姜棗	薑三棗二	
正氣補虛湯	姜棗	薑三棗二	
丁香透膈湯	姜棗	薑三棗二	
調解散	姜棗	薑三棗二	
竹葉防風湯	姜棗	薑三棗二	
清脾飲	姜棗	薑三棗二	
清心散	姜棗	薑三棗二	
聚香飲子	姜棗	薑三棗二	
托裏和中湯	姜棗	薑三片棗二枚	
祛風通氣散	姜棗	薑三片棗二枚	
透膈湯	姜棗	薑三棗二	
平胃散	姜棗	薑三片棗二枚	
奔豚湯	生薑	薑三片棗二枚	
參苓白朮散	大棗	薑三棗二	
陶氏再造散	生姜 棗二	薑三片棗二枚	
陶氏升陽散火湯	姜三片棗一枚	薑三片棗二枚	
陶氏柴胡百合湯	姜三片棗一枚	薑三片棗二枚	

10) 許浚, 東醫寶鑑. 서울. 한미의학. 2001. p.630.
11) 李梴, 醫學入門. 서울. 高麗醫學. 1989. p.315.
12) 許浚, 東醫寶鑑. 서울. 한미의학. 2001. p.614.
13) 李梴, 醫學入門. 서울. 高麗醫學. 1989. p.316.
14) 許浚, 東醫寶鑑. 서울. 한미의학. 2001. p.83.
15) 李梴, 醫學入門. 서울. 高麗醫學. 1989. p.324.

處方	『入門』	『寶鑑』	비고
辛黃三白湯	姜三片棗一枚	薑三片棗二枚	
陶氏溫經益元湯	姜三片棗一枚	薑三片棗二枚	
參胡溫膽湯	姜三片棗二枚	薑三片棗二枚	
葛根湯	姜三片棗二枚	薑三片棗二枚	
桂麻各半湯	姜三片棗二枚	薑三片棗二枚	
桂婢各半湯	姜三棗二	薑三片棗二枚	
桂枝湯	姜三片棗二枚	薑三片棗二枚	
九味羌活湯	姜三片棗二枚	薑三片棗二枚	
大靑龍湯	姜三片棗二枚	薑三片棗二枚	
陶氏導痰湯	姜三片棗二枚	薑三片棗二枚	
陶氏補中益氣湯	姜三片棗二枚	薑三片棗二枚	
陶氏黃龍湯	姜三片棗二枚	薑三片棗二枚	
不換金正氣散	姜三片棗二枚	薑三片棗二枚	
小柴胡湯	姜三片棗二枚	薑三棗二	
柴陳湯	姜三片棗二枚	薑三棗二	
柴平湯	姜三片棗二枚	薑三棗二	
柴胡加桂湯	姜三片棗二枚	薑三棗二	
陽旦湯	姜三片棗二枚	薑三片棗二枚	
人參養胃湯	姜三片棗二枚	薑三片棗二枚	
竹皮逍遙散	姜三片棗二枚	薑三片棗二枚	
平陳湯	姜三片棗二枚	薑三棗二	
朮附湯	姜三片棗二枚	薑三片棗二枚	
柴胡桂枝湯	姜三片棗二枚	薑三片棗二枚	
陶氏沖和湯	姜三片棗二枚	薑三片棗二枚	

2. 『世醫得效方』을 出典으로 하는 處方

薑三片棗二枚가 포함된 『寶鑑』 處方 中 『世醫得效方』(이하 『得效』)에서 引用한 경우는 총 28회이며 이를 分類하면 다음과 같다.

1) 生薑과 大棗가 없는 것을 薑三片棗二枚로 바꾼 경우

『寶鑑』의 通氣騶風湯은

烏藥一錢半 川芎 白芷 桔梗 陳皮 白朮 甘草 各一錢 麻黃 枳殼 人參 各五分 右剉作一貼 入薑三片棗二枚 水煎服¹⁶⁾

이지만 原書인 『得效』의 通氣騶風湯은

天台烏藥 桔梗 川白芷 川芎 甘草 陳皮 白朮 麻黃 枳殼 人參 右爲末 每服三錢 紫蘇 木瓜 煎湯調下¹⁷⁾

로 되어 있다. 原書에 薑三片棗二枚가 없는데 『寶鑑』에서 薑三片棗二枚를 추가하였다. 이 외에도 1개 處方이 그러하다.

2) 生薑과 大棗의 分量이 定해지지 않은 것을 薑三片棗二枚로 바꾼 경우

『寶鑑』의 溫解散은

蒼朮 厚朴 陳皮 藿香 半夏麴 川芎 白芷 細辛 各一錢 官桂 白薑 甘草灸 各七分 右剉作一貼入薑三棗二水煎服¹⁸⁾

이지만 原書인 『得效』의 溫解散은

藿香葉 厚朴去粗皮薑汁炒 半夏麴 橘皮 蒼朮炒 細辛 川芎 白芷 各一分 上剉散 每服三錢 水一盞 生薑棗子 煎服¹⁹⁾

으로 되어 있다. 原書에 生薑과 大棗의 分量이 定해지지 않은 것을 『寶鑑』에서 薑三片棗二枚로 바꾸었다. 이 외에도 1개 處方이 그러하다.

3) 薑五片棗一枚를 薑三片棗二枚로 바꾼 경우

『寶鑑』의 小柴胡湯은

柴胡三錢 黃芩二錢 人參 半夏 各一錢 甘草 五分 右剉作一貼入 薑三棗二 水煎服²⁰⁾

이지만 原書인 『得效』의 小柴胡湯은

柴胡二兩去蘆 半夏湯洗七次六錢 黃芩 人參去蘆 粉草各三分 上剉散 每五錢 水一盞半 薑五片棗一枚 煎至六分 食前服²¹⁾

16) 許浚. 東醫寶鑑. 서울. 한미의학. 2001. p.574.

17) 危亦林. 世醫得效方.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64. p.653.

18) 許浚. 東醫寶鑑. 서울. 한미의학. 2001. p.913.

19) 危亦林. 世醫得效方.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64. p.983.

20) 許浚. 東醫寶鑑. 서울. 한미의학. 2001. p.597.

21) 危亦林. 世醫得效方.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64. p.21.

으로 되어 있다. 原書에 薑五片棗一枚로 되어 있는 것을 『寶鑑』에서 薑三片棗二枚로 바꾸었다. 이 외에도 2개의 處方이 그러하다.

4) 薑三片棗一枚를 薑三片棗二枚로 바꾼 경우

『寶鑑』의 薑朮湯은

白薑生 白朮 赤茯苓 半夏麴 各五錢 桂皮 甘草 各二錢半 右剉每五錢 薑三片棗二枚 水煎服²²⁾

이지만 原書인 『得效』의 薑朮湯은

白薑生 白朮 茯苓 半夏麴各半兩 辣桂 甘草炙 各一分 上剉散 每服三錢 水一盞 生薑三片紅棗一枚 煎 溫服²³⁾

으로 되어 있다. 原書에 薑三片棗一枚로 되어 있는 것을 『寶鑑』에서 薑三片棗二枚로 바꾸었다. 이 외에도 5개의 處方이 그러하다.

5) 薑五片棗二枚를 薑三片棗二枚로 바꾼 경우

『寶鑑』의 增損樂令湯은

半夏一錢半 黃芪 人參 橘皮 白茯苓 當歸 桂心 細辛 前胡 麥門冬 白芍藥 甘草 各七分 附子炮 熟地黃 各三分半 遠志二分 右剉作一貼 薑三棗二 水煎服²⁴⁾

이지만 原書인 『得效』의 增損樂令湯은

黃芪去蘆 人參去蘆 橘皮去白 當歸去尾 桂心 細辛 前胡 去蘆 甘草 茯苓湯洗 各二兩半 遠志三分去心炒 上剉散 每服三錢 水一盞半 生薑五片棗子二枚 煎食前服²⁵⁾

으로 되어 있다. 原書에 薑五片棗二枚로 되어 있는 것을 『寶鑑』에서 薑三片棗二枚로 바꾸었다.

6) 薑三片葱白二根을 薑三片棗二枚로 바꾼 경우

『寶鑑』의 芎芷香蘇散은

香附子 紫蘇葉 各二錢 蒼朮一錢半 陳皮 川芎 白芷 各一錢 甘草五分右剉作一貼 入薑三片棗二枚 水煎服²⁶⁾

이지만 原書인 『得效』의 芎芷香蘇散은 傷寒和解類에 나와 있다고 하나 실제 傷寒和解類에는 香蘇散만 있고 香蘇散은

香附子五兩炒去毛 紫蘇去根二兩半 陳皮二兩 甘草二兩 蒼朮二兩切 上剉散 每服四錢 水盞半 生薑三片 蔥白二根 煎 不拘時候²⁷⁾

로 되어 있다. 原書의 生薑三片葱白二根을 『寶鑑』에서 薑三片棗二枚로 바꾸었다.

7) 薑三片棗三枚를 薑三片棗二枚로 바꾼 경우

『寶鑑』의 熟地黃湯은

天花粉二錢 人參 麥門冬 各一錢半 熟地黃一錢 甘草五分 右剉作一貼 入糯米百粒 薑三棗二 水煎服²⁸⁾

이지만 原書인 『得效』의 熟地黃湯은

熟乾地黃一兩 人參三兩 麥門冬去心三兩 栝蒌根四兩 甘草半兩 上剉散 每服四錢 水二盞 糯米一撮 生薑三片棗三枚 煎食前服²⁹⁾

으로 되어 있다. 原書의 生薑三片棗三枚를 『寶鑑』에서 薑三片棗二枚로 바꾸었다.

8) 薑二片棗一枚를 薑三片棗二枚로 바꾼 경우

『寶鑑』의 六神散은

白茯苓 白朮豆炒 各二錢 人參 白朮 山藥炒 各一錢 甘草炙七分 右爲 末每取一錢入薑三棗二水煎服³⁰⁾

22) 許浚, 東醫寶鑑, 서울, 한미의학, 2001, p.49.

23) 危亦林, 世醫得效方,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64, p.418.

24) 許浚, 東醫寶鑑, 서울, 한미의학, 2001, p.708.

25) 危亦林, 世醫得效方,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64, p.371.

26) 許浚, 東醫寶鑑, 서울, 한미의학, 2001, p.604.

27) 危亦林, 世醫得效方,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64, p.31.

28) 許浚, 東醫寶鑑, 서울, 한미의학, 2001, p.1000.

29) 危亦林, 世醫得效方,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64, p.746.

30) 許浚, 東醫寶鑑, 서울, 한미의학, 2001, p.1028.

이지만 原書인 『得效』의 六神散은

人參 山藥炒 白朮 各半兩 甘草三錢 白茯苓 白扁豆
炒 各一兩 上爲末 每服一錢 薑二片棗一枚 煎³¹⁾

으로 되어 있다. 原書의 薑二片棗一枚를 『寶鑑』에서 薑三片棗二枚로 바꾸었다. 이 외에도 2개 處方이 그러하다.

9) 薑三片棗二枚로 동일한 경우

『寶鑑』의 加味四君子湯은

四君子湯 加肉豆蔻煨 訶子炮 各一錢 右剉作一貼 入
薑三片棗二枚 空心水煎服³²⁾

이지만 原書인 『得效』의 六君子湯³³⁾은

人參 甘草 白茯苓 白術 肉豆蔻濕紙裹煨熟剉碎以濃
紙盛壓去油 訶子煨 上剉散 每服三錢 生薑三片紅棗
二枚 煎服³⁴⁾

으로 되어 있다. 原書의 薑三片棗二枚를 그대로 引用하였다. 이 외에도 8개 處方이 그러하다.

표.2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得效』를 出典으로 하는 處方

處方	『入門』	『寶鑑』	비고
通氣驅風湯	없음	薑三片棗二枚	
黃芪六一湯	없음	薑三片棗二枚	
溫解散	生薑棗子	薑三片棗二枚	
加味四物湯	生薑紅棗	薑三片棗二枚	
加味十全湯	薑五片棗一枚	薑三棗二	
小柴胡湯	薑五片北棗一枚	薑三棗二	
實脾散	生薑五片棗一枚	薑三片棗二枚	
薑朮湯	生薑三片紅棗一枚	薑三片棗二枚	
木香散	生薑三片紅棗一枚	薑三棗二	
參香散	薑三片棗一枚	薑三棗二	

31) 危亦林. 世醫得效方.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64. p.630.

32) 許浚. 東醫寶鑑. 서울. 한미의학. 2001. p.760.

33) 『寶鑑』의 加味四君子湯은 『得效』에 六君子湯으로 되어 있다.

34) 危亦林. 世醫得效方.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64. p.249.

小清脾湯	薑三片棗一枚	薑三棗二	
神秘左經湯	薑三片棗一枚	薑三棗二	
八寶迴春湯	薑三片棗一枚	薑三片棗二枚	
增損樂令湯	生薑五片棗子二枚	薑三片棗二枚	
熟地黃湯	生薑三片棗三枚	薑三棗二	
六神散	薑二片棗一枚	薑三片棗二枚	
分氣飲	生薑二片棗子一枚	薑三棗二	
鷄腸散	薑三片棗一枚	薑三片棗二枚	
芎芷香蘇散	生薑三片蔥白二根	薑三片棗二枚	
六君子湯	生薑三片紅棗二枚	薑三片棗二枚	
加味養臟湯	生薑三片紅棗二枚	薑三片棗二枚	
橘皮湯	生薑三片紅棗二枚	薑三片棗二枚	
順氣木香散	生薑三片棗二枚	薑三片棗二枚	
柴胡地黃湯	薑三片紅棗二枚	薑三棗二	
木香散	生薑三片紅棗二枚	薑三片棗二枚	
草果平胃散	薑三片棗二枚	薑三片棗二枚	
桃仁湯	薑三片棗二枚	薑三片棗二枚	
沉香驚甲散	生薑三片棗二枚	薑三片棗二枚	

3. 『萬病回春』을 出典으로 하는 處方

薑三片棗二枚가 포함된 『寶鑑』 處方 中 『萬病回春』(이하 『回春』)에서 引用한 경우는 총 25회이며 이를 分類하면 다음과 같다.

1) 生薑과 大棗의 分量이 定해지지 않은 것을 薑三片棗二枚로 바꾼 경우

『寶鑑』의 加味大補湯은

黃芪蜜炒 人參 白朮 白茯苓 當歸酒洗 川芎 白芍藥
熟地黃 各七分 烏藥 牛膝酒洗 杜沖酒炒 木瓜 防風
羌活 獨活 薏苡仁 各五分 附子炮 沉香 木香 肉桂 甘
草 各三分 右剉作一貼 入薑三片棗二枚 水煎服³⁵⁾

이지만 原書인 『回春』의 加味大補湯은

黃芪蜜灸 人參去蘆 白朮去蘆 白茯苓去皮 當歸酒洗
川芎 白芍酒炒 大附子薑裏煨去皮臍 沉香 木香 各一
分 烏藥 牛膝去蘆酒洗 木瓜 杜仲去蘆酒洗 防風去蘆

35) 許浚. 東醫寶鑑. 서울. 한미의학. 2001. p.567.

羌活 獨活 薏苡仁 各五分 肉桂 甘草 各三分 右剉一劑 薑棗煎服³⁶⁾

으로 되어 있다. 原書에 生薑과 大棗의 分量이 定해지지 않은 것을 『寶鑑』에서 薑三片棗二枚로 바꾸었다. 이 외에도 4개 處方이 그러하다.

2) 生薑만 있는 것을 薑三片棗二枚로 바꾼 경우

『寶鑑』의 黃芪益氣湯은

黃芪蜜炒一錢 人參 白朮 半夏製 陳皮 各七分 當歸酒洗 川芎 藁本 甘草 各五分 黃柏酒炒 升麻 細辛 各五分 右剉作一貼 入薑三片棗二枚 水煎服³⁷⁾

이지만 原書인 『回春』의 黃芪益氣湯은

人參 白朮 陳皮 半夏薑汁炒 當歸酒炒 川芎藁本 甘草炙 各五分 升麻 黃柏酒炒 細辛 各三分 右剉一劑 薑三片 水煎服³⁸⁾

으로 되어 있다. 原書에 薑三片만 있는 것을 『寶鑑』에서 薑三片棗二枚로 바꾸었다.

3) 薑三片棗一枚를 薑三片棗二枚로 바꾼 경우

『寶鑑』의 加減正氣散은

蒼朮二錢 藿香 厚朴 陳皮 縮砂研 香附 半夏 甘草 各一錢 右剉作一貼 入薑三片棗二枚燈心一團 水煎服³⁹⁾

이지만 原書인 『回春』의 加減正氣散은

香附 半夏薑汁炒 甘草 藿香 蒼朮米泔浸炒 厚朴薑汁炒 陳皮 砂仁 各等分 右剉一劑 薑三片棗一枚燈心一團 水煎溫服⁴⁰⁾

으로 되어 있다. 原書에 薑三片棗一枚로 되어 있는 것을 『寶鑑』에서 薑三片棗二枚로 바꾸었다. 이 외에도 8개의 處方이 그러하다.

4) 薑一片棗一枚를 薑三片棗二枚로 바꾼 경우

『寶鑑』의 參歸養榮湯은

人參 當歸 川芎 白芍藥 熟地黃 白朮 白茯苓 陳皮 各一錢 甘草五分 右剉作一貼 入薑三片棗二枚 水煎服⁴¹⁾

이지만 原書인 『回春』의 參歸養榮湯은

人參去蘆 當歸 川芎 白芍 熟地黃 白朮去蘆 白茯苓去皮 陳皮 甘草 右剉一劑 生薑一片棗一枚 水煎溫服⁴²⁾

으로 되어 있다. 原書에서 薑一片棗一枚로 되어 있는 것을 『寶鑑』에서 薑三片棗二枚로 바꾸었다. 이 외에도 2개의 處方이 그러하다.

5) 薑一片棗二枚를 薑三片棗二枚로 바꾼 경우

『寶鑑』의 加味理中湯은

附子炮 人參 白朮 乾薑炒 肉桂 陳皮 白茯苓 甘草炙 各一錢 右剉作一貼 入薑三片棗二枚 水煎服⁴³⁾

이지만 原書인 『回春』의 加味理中湯은

大附子麩包裹去皮亮 人參去蘆 白朮去蘆 乾薑炒 肉桂 陳皮 茯苓去皮 各等分 甘草炙減半 右剉一劑 生薑一片棗二枚 水煎熱服⁴⁴⁾

으로 되어 있다. 原書에 薑一片棗二枚로 되어 있는 것을 『寶鑑』에서 薑三片棗二枚로 바꾸었다. 이 외에도 3개의 處方이 그러하다.

6) 薑三片棗二枚를 그대로 引用한 경우

『寶鑑』의 加味六君子湯은

香附子一錢半 白朮 白茯苓 陳皮 半夏 各一錢 人參七分 木香 縮砂 各五分 甘草三分 右剉作一貼 入薑三棗二 紫蘇葉七片 同煎服⁴⁵⁾

이지만 原書인 『回春』의 加味六君子湯은

人參七分 白朮去蘆 白茯苓去皮 陳皮 各一錢 香附一

36) 龔廷賢, 萬病回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57.

37) 許浚, 東醫寶鑑. 서울, 한미의학. 2001. p.257.

38) 龔廷賢, 萬病回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258.

39) 許浚, 東醫寶鑑. 서울, 한미의학. 2001. p.728.

40) 龔廷賢, 萬病回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146.

41) 許浚, 東醫寶鑑. 서울, 한미의학. 2001. p.583.

42) 龔廷賢, 萬病回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323.

43) 許浚, 東醫寶鑑. 서울, 한미의학. 2001. p.748.

44) 龔廷賢, 萬病回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180.

45) 許浚, 東醫寶鑑. 서울, 한미의학. 2001. p.699.

錢二分 木香 砂仁 各五分 甘草三分 半夏薑汁製一錢
右剉一劑 生薑三片棗二枚 水煎溫服⁴⁶⁾

으로 되어 있다. 原書의 薑三片棗二枚를 그대로 引用하였다. 이 외에도 2개 處方이 그러하다.

표.3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回春』을 出典으로 하는 處方

處方	『入門』	『寶鑑』	비고
加味大補湯	薑棗	薑三片棗二枚	
溫脾散	薑棗	薑三片棗二枚	
滋陰健脾湯	薑棗	薑三片棗二枚	
清肺湯	生薑棗子	薑三棗二	
香砂養胃湯	薑棗	薑三片棗二枚	
黃芪益氣湯	薑三片	薑三片棗二枚	
加減正氣散	薑三片棗一枚	薑三片棗二枚	
柴胡解肌湯	薑三片棗一枚	薑三棗二	
參芪湯	薑三片棗一枚	薑三片棗二枚	
安胃湯	生薑三片棗一枚	薑三棗二	
滋腎湯	生薑三片棗一枚	薑三片棗二枚	
滋陰降火湯	生薑三片大棗一枚	薑三片棗二枚	
除濕健脾湯	生薑三片棗一枚	薑三片棗二枚	
調元散	生薑三片 棗一枚	薑三棗二	
清熱二陳湯	薑三片棗一枚	薑三棗二	
參歸養榮湯	生薑一片棗一枚	薑三片棗二枚	
加味柴平湯	生薑一片棗一枚	薑三棗二	
益氣安神湯	生薑一片棗一枚	薑三片棗二枚	
加味理中湯	生薑一片棗二枚	薑三棗二	
加味四君子湯	薑一片棗二枚	薑三棗二	
參歸龜甲湯	生薑一片棗二枚	薑三棗二	
人參截瘧飲	生薑一片棗二枚	薑三棗二	
加味六君子湯	生薑三片棗二枚	薑三棗二	
人參養榮湯	生薑三片棗二枚	薑三棗二	
柴胡芎歸湯	生薑三片棗二枚	薑三棗二	

4. 『古今醫鑑』을 出典으로 하는 處方

薑三片棗二枚가 포함된 『寶鑑』 處方 中 『醫鑑』(이

46) 龔廷賢, 萬病回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66.

하 『醫鑑』에서 引用한 경우는 총 22회이며 이를 分類하면 다음과 같다.

1) 生薑과 大棗의 分量이 定해지지 않은 것을 薑三片棗二枚로 바꾼 경우

『寶鑑』의 加味柴胡湯은

柴胡二錢 黃芩 半夏 人參 枳殼 大黃 甘草 各一錢 右剉作一貼 入薑三棗二 水煎服⁴⁷⁾

이지만 原書인 『醫鑑』의 加味柴胡湯은

柴胡 黃芩 半夏 人參 枳殼 大黃 甘草 上剉一劑 薑棗煎空心服⁴⁸⁾

으로 되어 있다. 原書에 生薑과 大棗의 分量이 定해지지 않은 것을 『寶鑑』에서 薑三片棗二枚로 바꾸었다. 이 외에도 10개 處方이 그러하다.

2) 生薑만 있는 것을 薑三片棗二枚로 바꾼 경우

『寶鑑』의 抑青明目湯은

當歸 白芍藥 生乾地黃 白朮 赤茯苓 陳皮 半夏 草龍膽 柴胡 黃連 梔子 牡丹皮 白豆蔻 甘草 各七分 右剉作一貼 入薑三棗二 水煎服⁴⁹⁾

이지만 原書인 『醫鑑』의 抑青明目湯은

當歸 白芍 生地黃 白朮 茯苓 陳皮 半夏 龍膽草 柴胡 黃連 梔子 牡丹皮 白豆蔻 甘草 生薑 煎服⁵⁰⁾

으로 되어 있다. 原書에 生薑으로만 있는 것을 『寶鑑』에서 薑三片棗二枚로 바꾸었다. 이 외에도 1개 處方이 그러하다.

3) 薑一片棗二枚를 薑三片棗二枚로 바꾼 경우

『寶鑑』의 龍虎湯은

石膏二錢半 柴胡 黃連 各一錢半 黃芩 知母 黃柏 各

47) 許浚, 東醫寶鑑. 서울, 한미의학. 2001. p.854.

48) 龔信, 古今醫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85.

49) 許浚, 東醫寶鑑. 서울, 한미의학. 2001. p.296.

50) 龔信, 古今醫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282.

一錢 梔子八分 半夏七分 粳米百粒 右剉作一貼 入薑三棗二 水煎服⁵¹⁾

이지만 原書인 『醫鑑』의 龍虎湯은

柴胡一錢五分 黃芩一錢五分 半夏薑制七分 石膏二錢五分 黃連一錢五分 黃柏一錢二分 知母一錢去毛 山梔仁一錢 粳米一撮 上剉一劑 生薑一片大棗二枚 水煎溫服⁵²⁾

으로 되어 있다. 原書에 薑一片棗二枚로 되어 있는 것을 『寶鑑』에서 薑三片棗二枚로 바꾸었다.

4) 薑三片棗一枚를 薑三片棗二枚로 바꾼 경우

『寶鑑』의 葛根解肌湯은

葛根 柴胡 黃芩 芍藥 羌活 石膏 升麻 白芷 桔梗 各一錢 甘草五分 右剉作一貼 入薑三棗二 水煎服⁵³⁾

이지만 原書인 『醫鑑』의 葛根解肌湯은

乾葛 柴胡 黃芩 芍藥 羌活 白芷 桔梗 甘草 上剉 每服一兩 生薑三片棗一枚 石膏末一撮 水煎熱服⁵⁴⁾

으로 되어 있다. 原書에 薑三片棗一枚로 되어 있는 것을 『寶鑑』에서 薑三片棗二枚로 바꾸었다. 이 외에도 2개의 處方이 그러하다.

5) 薑三片棗二枚로 동일한 경우

『寶鑑』의 藿香正氣散은

藿香一錢半 紫蘇葉一錢 白芷 大腹皮 白茯苓 厚朴 白朮 陳皮 半夏製 桔梗 甘草灸 各五分 右剉作一貼 入薑三片棗二枚 水煎服⁵⁵⁾

이지만 原書인 『醫鑑』의 藿香正氣散은

藿香二錢 紫蘇一錢五分 陳皮一錢 厚朴薑制一錢 半夏薑制一錢 白朮一錢炒 茯苓一錢 大腹皮一錢 桔梗一錢 白芷一錢 甘草灸一錢 上剉一劑 生薑三片棗二枚 水煎熱服⁵⁶⁾

으로 되어 있다. 原書의 薑三片棗二枚를 그대로 引用하였다. 이 외에도 4개 處方이 그러하다.

표.4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醫鑑』을 出典으로 하는 處方

處方	『入門』	『寶鑑』	비고
加減溫膽湯	薑棗	薑三片棗二枚	
加減胃苓湯	生薑棗	薑三棗二	
加味柴胡湯	薑棗	薑三棗二	
補血祛風湯	薑棗	薑三片棗二枚	
胃苓湯	生薑棗	薑三片棗二枚	
滋筋養血湯	薑棗	薑三棗二	
倉廩散	薑棗	薑三片棗二枚	
清熱導痰湯	薑棗	薑三片棗二枚	
升麻白芷湯	薑棗	薑三片棗二枚	
香砂養胃湯	薑棗	薑三片棗二枚	
香砂六君子湯	薑棗	薑三片棗二枚	
抑青明目湯	生薑	薑三棗二	
九味羌活湯	生薑	薑三片棗二枚	
龍虎湯	生薑一片大棗二枚	薑三棗二	
葛根解肌湯	生薑三片棗一枚	薑三片棗二枚	
大七氣湯	生薑三片棗一枚	薑三棗二	
通經湯	生薑三片棗一枚	薑三片棗二枚	
藿香正氣散	生薑三片棗二枚	薑三片棗二枚	
比和飲	生薑三片棗二枚	薑三棗二	
清暑六和湯	生薑三片棗二枚	薑三片棗二枚	
補氣湯	生薑三片棗二枚	薑三棗二	
正氣湯	生薑三片大棗二枚	薑三棗二	

5. 『仁齋直指』를 出典으로 하는 處方

薑三片棗二枚가 포함된 『寶鑑』 處方 中 『仁齋直指』(이하 『直指』)에서 引用한 경우는 총 15회이며 이를 分類하면 다음과 같다.

1) 生薑과 大棗의 分量이 定해지지 않은 것을 薑三片棗二枚로 바꾼 경우

『寶鑑』의 加劑除濕湯은

56) 龔信. 古今醫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138.

51) 許浚. 東醫寶鑑. 서울. 한미의학. 2001. p.838.

52) 龔信. 古今醫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130.

53) 許浚. 東醫寶鑑. 서울. 한미의학. 2001. p.596.

54) 龔信. 古今醫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72.

55) 許浚. 東醫寶鑑. 서울. 한미의학. 2001. p.603.

赤茯苓 乾薑 各二錢 蒼朮 白朮 甘草 各一錢 橘紅 桂皮 厚朴 各五分 右剉作一貼 入薑三棗二 水煎服⁵⁷⁾

이지만 原書인 『直指』의 加劑除濕湯은

蒼朮炒 白朮 甘草炙 各一兩 乾薑炮 茯苓 各二兩 橘紅 辣桂 厚朴製 上剉 每服三錢 薑棗煎服⁵⁸⁾

으로 되어 있다. 原書에 生薑과 大棗의 分量이 定해지지 않은 것을 『寶鑑』에서 薑三片棗二枚로 바꾸었다. 이 외에도 8개 處方이 그러하다.

2) 薑四片棗二枚를 薑三片棗二枚로 바꾼 경우

『寶鑑』의 麻黃白朮湯은

麻黃 桂皮 青皮 陳皮 川芎 白芷 半夏麴 紫蘇葉 赤茯苓 白朮 桔梗 細辛 檳榔 甘草 各七分 右剉作一貼 入薑三棗二 水煎服⁵⁹⁾

이지만 原書인 『直指』의 麻黃白朮湯은

麻黃去節 官桂 青皮 陳皮 川芎 白芷 半夏麴 紫蘇 茯苓 白朮 北梗 甘草 上剉散 每服三錢 薑四片棗二枚 空心煎服⁶⁰⁾

으로 되어 있다. 原書에 薑四片棗二枚로 되어 있는 것을 『寶鑑』에서 薑三片棗二枚로 바꾸었다. 이 외에도 1개 處方이 그러하다.

3) 薑五片棗二枚를 薑三片棗二枚로 바꾼 경우

『寶鑑』의 沈香磨脾散은

藿香一錢 丁香 白檀 木香 白豆蔻 縮砂 半夏麴 辣桂 烏藥 各七分 甘草灸五分 人參 沈香 各三分 右剉作一貼 入薑三片棗二枚 水煎服⁶¹⁾

이지만 原書인 『直指』의 沈香磨脾散은

人參 沈香各一分 丁香 檀香 木香 白豆蔻 縮砂仁 半夏麴 辣桂 烏藥 各半兩 藿香葉三分 甘草灸三錢半 上細剉 每二錢 薑五片棗二枚 煎服⁶²⁾

으로 되어 있다. 原書에 薑五片棗二枚로 되어 있는 것을 『寶鑑』에서 薑三片棗二枚로 바꾸었다. 이 외에도 1개 處方이 그러하다.

4) 薑七片棗二枚를 薑三片棗二枚로 바꾼 경우

『寶鑑』의 桂枝四七湯은

桂枝 半夏 各二錢 白芍藥酒炒一錢半 白茯苓 厚朴 枳殼 各七分 人參 紫蘇葉 甘草灸 各五分 右剉作一貼 入薑三片棗二枚 水煎服⁶³⁾

이지만 原書인 『直指』의 桂枝四七湯은

桂枝 白芍藥 半夏製 各一兩 白茯苓 厚朴製 枳殼製 甘草灸 各半兩 人參 紫蘇 各一分 上剉 每服四錢 薑七片棗二枚 食前煎服⁶⁴⁾

으로 되어 있다. 原書에 薑七片棗二枚로 되어 있는 것을 『寶鑑』에서 薑三片棗二枚로 바꾸었다.

5) 薑三片棗二枚로 동일한 경우

『寶鑑』의 分心氣飲은

紫蘇葉一錢二分 甘草灸七分 半夏製 枳殼 各六分 青皮 陳皮 木通 大腹皮 桑白皮 木香 赤茯苓 檳榔 蓬朮 麥門冬 桔梗 桂枝 香附子 藿香 各五分 右剉 薑三片棗二枚燈心十莖 煎服⁶⁵⁾

이지만 原書인 『直指』의 分心氣飲은

紫蘇葉三兩 半夏製 枳殼製 各一兩半 青皮去白 陳橘皮 大腹皮 桑白皮炒 木通去節 赤茯苓 南木香 檳榔 蓬朮朮煨 麥門冬去心 桔梗 辣桂 香附子 上剉散 每服三錢 水大盞 薑三片棗二枚燈心十莖⁶⁶⁾

57) 許浚. 東醫寶鑑. 서울. 한미의학. 2001. p.651.

58) 仁齋直指, 欽定四庫全書醫家類 卷12.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84.

59) 許浚. 東醫寶鑑. 서울. 한미의학. 2001. p.835.

60) 仁齋直指, 欽定四庫全書醫家類 卷12.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269.

61) 許浚. 東醫寶鑑. 서울. 한미의학. 2001. p.389.

62) 仁齋直指, 欽定四庫全書醫家類 卷12.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145.

63) 許浚. 東醫寶鑑. 서울. 한미의학. 2001. p.367.

64) 仁齋直指, 欽定四庫全書醫家類 卷12.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140.

65) 許浚. 東醫寶鑑. 서울. 한미의학. 2001. p.32.

66) 仁齋直指, 欽定四庫全書醫家類 卷12. 서울. 大星文化社.

으로 되어 있다. 原書의 薑三片棗二枚를 그대로 引用하였다.

표.5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直指』를 出典으로 하는 處方

處方	『入門』	『寶鑑』	비고
加劑除濕湯	薑棗	薑三片棗二枚	
芎歸飲	薑棗	薑三片棗二枚	
消蠱湯	薑棗	薑三片棗二枚	
升麻散	薑棗	薑三片棗二枚	
實腸散	薑棗	薑三片棗二枚	
溫肺湯	薑棗	薑三片棗二枚	
木香散	薑棗	薑三片棗二枚	
調導飲	薑棗	薑三片棗二枚	
沈香降氣湯合調氣散	薑棗	薑三片棗二枚	
麻黃白朮湯	薑四片棗二枚	薑三片棗二枚	
麻黃白朮湯	薑四片棗二枚	薑三片棗二枚	
沈香磨脾散	薑五片棗二枚	薑三片棗二枚	
人參平肺湯	薑五片棗二枚	薑三片棗二枚	
桂枝四七湯	薑七片棗二枚	薑三片棗二枚	
分心氣飲	薑三片棗二枚	薑三片棗二枚	

6. 『醫學正傳』을 出典으로 하는 處方

薑三片棗二枚가 포함된 『寶鑑』處方中 『醫學正傳』(이하 『正傳』)에서 引用한 경우는 총 16회이며 이를 分類하면 다음과 같다.

1) 薑三片棗一枚를 薑三片棗二枚로 바꾼 경우

『寶鑑』의 蔓荊子散은

蔓荊子 赤茯苓 甘菊 前胡 生地黃 麥門冬 桑白皮 赤芍藥 木通 升麻 甘草 各七分 右剉作一貼 入薑三片棗二枚 水煎 食後服⁶⁷⁾

이지만 原書인 『正傳』의 蔓荊子散은

炙甘草 升麻 木通 赤芍藥 桑白皮蜜製 麥門冬 生地黃 前胡 甘菊花 赤茯苓 蔓荊子 各五分 上細切 作一服 加生薑三片大棗一枚 水盪半 煎至一盪 去渣食後服⁶⁸⁾

1995. p.131.

67) 許浚, 東醫寶鑑, 서울, 한미의학, 2001. p.314.

으로 되어 있다. 原書에 薑三片棗一枚로 되어 있는 것을 『寶鑑』에서 薑三片棗二枚로 바꾸었다. 이 외에도 8개의 處方이 그러하다.

2) 薑五片棗一枚를 薑三片棗二枚로 바꾼 경우

『寶鑑』의 金佛草散은

荊芥穗二錢 旋覆花 前胡 各一錢半 麻黃 赤茯苓 各一錢 半夏七分半 細辛 甘草 各三分 右剉作一貼 入薑三棗二枚 一水煎綿濾去滓服⁶⁹⁾

이지만 原書인 『正傳』의 金佛草散은

前胡一錢五分 半夏七分半 細辛三分 赤茯苓一錢 甘草三分 荊芥穗二分 旋覆花一錢五分 上細切 作一服 加生薑五片大棗一枚 水一盪半 煎至一盪 溫服⁷⁰⁾

으로 되어 있다. 原書에 薑五片棗一枚로 되어 있는 것을 『寶鑑』에서 薑三片棗二枚로 바꾸었다.

3) 薑三片棗二枚로 동일한 경우

『寶鑑』의 大柴胡湯은

柴胡四錢 黃芩 芍藥 各二錢半 大黃二錢 枳實一錢半 半夏一錢 右剉作一貼 入薑三片棗二枚 水煎服⁷¹⁾

이지만 原書인 『正傳』의 大柴胡湯은

柴胡四錢 黃芩 芍藥各二錢五分 半夏二錢 人參一錢 大黃二錢 枳實一錢五分 上細切 作一服 加生薑三片大棗二枚 水二盪 煎八分 去渣溫服⁷²⁾

으로 되어 있다. 原書의 薑三片棗二枚를 그대로 引用하였다. 이 외에도 4개 處方이 그러하다.

표.6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正傳』을 出典으로 하는 處方

處方	『入門』	『寶鑑』	비고
蔓荊子散	生薑三片大棗一枚	薑三片棗二枚	

68) 虞搏, 醫學正傳, 서울, 成輔社, 1986. p.299.

69) 許浚, 東醫寶鑑, 서울, 한미의학, 2001. p.746.

70) 虞搏, 醫學正傳, 서울, 成輔社, 1986. p.46.

71) 許浚, 東醫寶鑑, 서울, 한미의학, 2001. p.605.

72) 虞搏, 醫學正傳, 서울, 成輔社, 1986. p.41.

木香流氣飲	生薑三片大棗一枚	薑三片棗二枚	
茯苓散	生薑三片大棗一枚	薑三片棗二枚	
三根飲	生薑三片大棗一枚	薑三片棗二枚	
安胎散	生薑三片大棗一枚	薑三棗二	
加味二陳湯	生薑三片大棗一枚	薑三片棗二枚	
紫蘇子湯	生薑三片大棗一枚	薑三片棗二枚	
太無神朮散	生薑三片大棗一枚	薑三棗二	
和中飲	生薑三片大棗一枚	薑三片棗二枚	
金佛草散	生薑五片大棗一枚	薑三棗二	
大柴胡湯	生薑三片大棗二枚	薑三片棗二枚	
加味敗毒散	生薑三片大棗二枚	薑三棗二	
經驗二防飲	生薑三片大棗二枚	薑三棗二	
六君子湯	生薑三片大棗二枚	薑三片棗二枚	
防已黃耆湯	生薑三片大棗二枚	薑三片棗二枚	

III. 結論

『寶鑑』處方에서 薑三片 棗二枚가 포함된 경우는 총 251方으로 30종 醫書를 출전으로 하고 있다. 그 중 최소 10회 이상 引用하여 상대적으로 빈도수가 높은 書籍으로는 『入門』 58方, 『得效』 28方, 『回春』 26方, 『醫鑑』 22方, 『正傳』 16方, 『直指』 16方 등이다. 이상 167方에 대하여 薑三片棗二枚를 中心으로 해당 醫書와 對照하여 『寶鑑』의 處方 構成이 原書와 同一한지 與否를 살펴보았다.

1. 『寶鑑』引用 『直指』 15方 가운데 原書에서는 9개 處方이 生薑과 大棗의 分量을 밝히고 있지 않았다. 이 외에도 『直指』에는 薑四片棗二枚와 薑五片棗二枚로 된 處方이 각각 2개, 薑七片棗二枚로 된 處方이 1개 있었는데 『寶鑑』에서는 이들 모두를 薑三片棗二枚로 수록하여 生薑과 大棗의 用量을 定해 놓았으며, 93.3%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꾸어 기록하였다.
2. 『寶鑑』引用 『回春』 25方 가운데 原書에서는 9개 處方이 薑三片棗一枚로 되어 있었다. 이 외에도 『回春』에는 生薑과 大棗의 分量을 밝히지 않은 處方이 5개가 있었으며, 薑一片棗二枚로 된 處方이 4개, 薑一片棗一枚로 된 處方이 3개, 生薑만 있는 處方이 1개가 있었는데, 『寶鑑』에서는 이들 모두를 薑三片棗二枚로 수록하여 生薑과 大棗의 用量을 定해

놓았으며, 88.0%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꾸어 기록하였다.

3. 『寶鑑』引用 『醫鑑』 22方 가운데 原書에서는 11개 處方이 生薑과 大棗의 分量을 밝히고 있지 않았다. 이 외에도 『醫鑑』에는 薑三片棗一枚로 된 處方이 3개, 生薑만 있는 處方이 2개, 薑一片棗二枚로 된 處方이 1개가 있었는데, 『寶鑑』에서는 이들 모두를 薑三片棗二枚로 수록하여 生薑과 大棗의 用量을 定해 놓았으며, 77.3%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꾸어 기록하였다.
4. 『寶鑑』引用 『得效』 28方 가운데 原書에서는 6개 處方이 薑三片棗一枚로 되어 있었다. 이 외에도 『得效』에는 薑五片棗一枚로 된 處方이 3개, 生薑과 大棗의 分量이 정해지지 않은 處方이 2개, 生薑과 大棗가 없는 處方이 2개, 薑二片棗一枚로 된 處方이 3개, 薑五片棗二枚와 薑三片蔥二根 그리고 薑三片棗三枚로 된 處方이 각각 1개씩 있었는데, 『寶鑑』에서는 이들 모두를 薑三片棗二枚로 수록하여 生薑과 大棗의 用量을 定해 놓았으며, 67.9%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꾸어 기록하였다.
5. 『寶鑑』引用 『正傳』 15方 가운데 原書에서는 9개 處方이 薑三片棗一枚로 되어 있었다. 이 외에도 『正傳』에는 薑五片棗一枚로 된 處方이 1개가 있었는데 『寶鑑』에서는 이들 모두를 薑三片棗二枚로 수록하여 生薑과 大棗의 用量을 定해 놓았으며, 66.7%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꾸어 기록하였다.
6. 『寶鑑』引用 『入門』 58方 가운데 27개 處方이 生薑과 大棗의 分量을 밝히고 있지 않았다. 이 외에도 『入門』에는 薑三片棗一枚로 된 處方 4개, 生薑과 大棗가 없는 處方이 2개, 生薑만 있는 處方이 1개, 大棗만 있는 處方이 1개, 生薑의 分量은 정하지 않고 棗二枚만 있는 處方이 1개가 있었는데, 『寶鑑』에서는 이들 모두를 薑三片棗二枚로 수록하여 生薑과 大棗의 用量을 定해 놓았으며, 63.8%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꾸어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結果로 볼 때, 『寶鑑』에서는 處方을 수록할 때 醫書를 引用하면서도 加減없이 그대로 引用하지 않고,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處方 내용을 바꾸어 收錄하였다. 즉 原書의 處方을 引用할 때 處

方の 構成藥物이나 用法은 바꾸지 않으면서도 유독 生薑과 大棗에 대해서는 薑三片和 棗二枚로 그 量을 바꾸거나, 生薑과 大棗가 없는 處方에 薑三片棗二枚를 추가시켜 수록하거나, 단순히 薑棗煎湯이라하여 그 用量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薑三片棗二枚라 하여 用量을 規定하는 등 生薑과 大棗의 使用量에 대하여 일정한 원칙을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寶鑑』이 여러 醫書의 處方을 引用하면서 引用書에 生薑과 大棗의 使用에 있어서 基準이 明確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使用者를 위해 正確한 用量과 基準을 提示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2010년 원광대학교 교내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된 것임.

參考文獻

1. 許浚. 東醫寶鑑. 서울. 한미의학. 2001.
2. 李梴. 醫學入門. 서울. 高麗醫學. 1989.
3. 危亦林. 世醫得效方.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64.
4. 龔廷賢. 萬病回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5. 龔信. 古今醫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6. 虞搏. 醫學正傳. 서울. 成輔社. 1986.
7. 仁齋直指, 欽定四庫全書醫家類 卷12. 서울. 大星文化社. 1995.